의 삶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이론적 추구의 여유가 없어지고 옛 철학이론을 현실에 적응시키는 실천철학으로 바꾸어 놓았다. 헬레니즘 철학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헬레니즘은 현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다. 둘째, 이성과 지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모든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추구하는 합리주의적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셋째, 이성과 결합된 미를 사랑하였고, 조화와 통일성을 추구했던 것이다.



# 성서와 5대 제국 (4)

2018.8.29.
길잡이
신연식 목사

## 1. 헬라 제국의 등장 배경

### (1)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식민시는 점차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 페르시아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 원정을 시작한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지휘한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9년 밀레토스를 함락하고 이오니아를 획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페르시아는 에게 해의 섬들과 에레트리아를 점령한 후 아테네로 진군했다. 아테네는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육군병을 맞아 중갑보병 9천 명을 주축으로 대승을 거두었으며, 페르시아는 에게 해를 단념하고 철수했다. 이어 페르시아의 왕위를 계승한 크세르크세스에 의해 제2차 원정이 시작되었다. 그리스에서는 이에 맞서 스파르타를 맹주로 하는 동맹을 결성,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협력 체제가 구축되었다. 페르시아는 살라미스 해전, 프라타이아 전투에서 잇따라 패하고, 결국 원정에 실패하였다.

### (2)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전쟁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의 엄청난 침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친 연합으로 인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한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지배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리스 연합군은 언제든지 페르시아나 그와 비슷한 국가에서 침

략해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각 도시국가들이 전쟁기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런데 아테네가 그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는데 쓰기도 하여 동맹국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아테네가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를 무찌르는데 아테네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도시국가들 가운데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다.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는 해군력이 강했던 아테네의 공이 큰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테네가 기금을 유용한 것과 더불어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인 고린도까지 지배하려하자 스파르타를 비롯한 다른 도시국가들이 마침내 전쟁



그 높이가 400ft나 되는 대등대(Pharos)가 있다. 여기에 부수하여 인간의 형상을 딴 신상들이 많이 조각되었다. 아프로디테의 나체상은 이 시대의 여성미의 상징이며, 라오콘(Laocoon)군상은 이 시대의 남성미의 상징이다.

헬레니즘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문화의 세계적 확산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간다라 미술의 출현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때 왕을 수행하였던 그리스의 조각가들은 조각술을 동방세계 특히 인도에 전달하였다. 이 때에 인도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성립되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불교의 세계에서는 아직 불상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른바 무 불상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불상을 엉터리로 만듦으로서 부처님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 조각술이 소개되면서 그러한 우려는 사라지고 특히 카니시카왕은 불교를 보호, 장려하는 한편 불상 제작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지금의 파키스탄령인 간다라지방에서 불교문화와 그리스문화의 혼합, 융화의 결실로 불상의 한 형식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대체로 아폴론형과 소포클레스형의 불상과 귀인들의 모습을 띠고 있는 보살상으로 표출되었다. 이 형식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한국·일본으로 전해졌다.

### (3) 헬레니즘 철학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의 출현은 그리스 철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알렉산더가 건립한 대제국 밑에서 종래의 도시국가(폴리스) 중심의 정치철학이나 도덕철학이 그 의미를 잃고, 세계국가(코스모폴리스)의 성격을 띠게 되어 국가의 문제보다는 개인

### (2)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란 한마디로 그리스문화와 동방문화의 결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스의 합리적 정신과 휴머니즘은 고대이집트의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자연과학이 중심이 된 문화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통일사업은 종족의식·민족의식의 벽을 깨뜨려 버리고 세계주의와 개인주의를 만들어 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각지에 만든 새로운 폴리스와, 그 뒤 셀레우코스 왕들이 영내에 많이 만든 새로운 폴리스가 중심이 되어 그리스문화는 오리엔트의 오지에까지 침투하였다. 그리고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간소화한 그리스어가 공통어(코이네)로서 사용되었다. 이 같은 헬레니즘은 로마로 이전되어 로마 말기 기독교가 체계화되어 이른바 기독교 문화권이 형성되어 이를 대체할 때까지 약 500여 년간 지속된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에서 잘 표현되었다. 일찍이 이집트에서 발달하였던 기하학과 천문학이 이 시대에 특히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유클리드는 평면기하학을 발전시켜, 그가 만든 유클리드공리는 현대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시실리의 시라큐스 출신 아르키메데스는 아르키메데스원리인 중력과 부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으며,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 중심의 지동설을 주장하였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반지름을 추정하였고, 단 1%의 오차밖에 없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추정해 내었다.

미술에 있어서는 숭고한 정신적 미를 추구하는 그리스적 경향이 사라지고 향락적 관능미가 등장하였다. 코린트 스타일의 미술이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정복지의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신전·궁전·극장·도서관·의사당·목욕탕 등의 건축이 성행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고대세계의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을 일으키게 된다. 이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나 그리스 도시국가간의 내전으로 그리스 문명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그리스 도시국가는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권력이 이동해가다가 마케도니아의 필립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헬라제국에 귀속된다.

### (3) 마케도니아의 등장

B.C. 4세기 후반 아테네가 힘을 잃으면서 그리스 전체의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다. 노예제의 발달에 따라 자유민이 몰락했으며, 자유민의 몰락과 더불어 시민들이 폴리스(Polis)에 대한 열정과 애착심을 잃고 정치에 무관심해졌다. 스파르타와 테베가 차례로 그리스 반도의 패권을 잡지만, 힘에서나 권위에서나 제국 일보 직전까지 갔던 아테네의 빈 구멍은 메우지 못했다.

중심이 약하면 주변이 강해지게 마련이다. 미개인들이 사는 오지로만 알았던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가 B.C. 4세기경부터 그리스문화의 영향을 받아 차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필리포스 2세(BC 382-336)때에는 국내 금광을 개발하여 재력을 기르고, 파랑크스(Phalanx)라는 장창 밀집부대를 편성하여, 차츰 사방의 여러 민족을 쳐서 그 영토를 넓혔다. 필립포스 2세는 드디어 대군대를 거느리고, BC 346년 중부 그리스로 쳐들어갔다. 이로써 필립포스의 그리스 지배가 시작되어, 폴리스는 정치적 단위로서의 기능을 잃고, 코린트 동맹이 조직되어 필립포스를 맹주로 하는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 2. 헬라 제국의 역사(B.C. 336~ B.C. 30)

### (1) 알렉산더 대왕(B.C.336 ~ B.C.323)

그리스의 전토 패권을 손아귀에 넣은 필립포스 왕은 코린트 회의를 열어 자신이 의장이 되어 페르시아 정벌의 뜻을 밝힘으로써 그리스 전체의 단결을 굳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한 신하에게 암살당하고 만다.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암살되자 알렉산더는 군대의 지지를 받아 왕위를 이어 받는다. 알렉산더는 즉위하자마자 부왕의 암살 혐의를 핑계로 정적들을 제거해 버렸다. 알렉산더는 코린트 동맹의 총사령관의 지위를 이었으나 테베를 중심으로 그리스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알렉산더는 즉각 테베를 포위 공격하여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고, 살아남은 테베 시민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이 단호한 조치에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은 공식적으로 알렉산더 앞에 사죄하고 굴복하였다.

그리스 내부의 문제가 정리되자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늘 꿈꾸어 왔던 페르시아 원정길에 올랐다. 스물 두 살의 젊은 왕은 보병 약 3만과 기병 5천, 그리스 동맹 연합군 7천 가량을 대동하고 소아시아의 연안을 향해 출발했다. 이렇게 시작된 원정은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11년간 계속된다.

페르시아 원정에 나선 지 한 달여 지난 5월에 알렉산더는 그라니쿠스 강에서 치른 페르시아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 소아시아에서 페르시아 지배의 중심지인 사르데스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기원전 332년 11월, 알렉산더는 이집트에 다다른다. 이집트를 다스리던 페르시아 지사는 순순히 항복했고,



-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와 남부 시리아 통치. BC 30 로마에 의해 멸망
-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와 서남아시아 통치. BC 63 파르티아에 의해 멸망
- **카산드로스 왕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일부 통치 BC 146 로마에 멸망

## 3. 헬레니즘(Hellenism)

### (1) 헬레니즘의 정의와 성립

헬레니즘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의 뒤를 잇는, 세계 역사상 한 시대를 규정짓는 개념으로서. 그리스인을 의미하는 헬렌(Helen)'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기 나라를 'Helas'라 부른 사실을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상, 생활양식 등의 정신적 근저를 헬레니즘이라 명명하면서 유래된 그리스 정신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헬레니즘을 정의할 때 그리스문화의 확대·발전으로 볼 것이냐, 반대로 오리엔트 문화를 통한 그리스문화의 퇴폐로 볼 것이냐 하는 학자들의 충돌이 있으나, 그리스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질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 태어난 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는 B.C. 330년 알렉산더의 페르시아제국 정복에서, BC 30년의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하기까지의 300년간이 그 시대범위로 간주된다. 지역적 범위는 마케도니아·그리스에서부터 대왕의 정복지 전역(인더스 유역·박트리아·메소포타미아·소아시아·이집트)까지이다.

이집트인들은 알렉산더를 페르시아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킨 구원자로 여겨 환영했다. 알렉산더는 3년간 다리우스 1세를 추격하며 정복에 정복을 거듭했다. 페르시아 왕의 왕궁이 있던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파사르가다이가 그의 수중에 들어왔다. 이어서 메디아로 진군해 수도인 엑바타나를 점령했고, 인도까지 진출하여 인도 왕 포로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러나 기원전 323년 6월, 알렉산더는 아라비아의 원정을 준비하며 분주하던 중에 고열로 쓰러졌다. 결국 33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그때까지 알렉산더에게는 직계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측근들은 왕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8년의 원정으로 통합한 알렉산더 제국은 부하 장수들의 다툼으로 곧 분열되기 시작했다. 속주들은 곧 독립 왕국이 되었고 셀레우코스나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부관들은 앞다투어 왕을 칭하며 제국을 분할 점령했다.




**(2) 알렉산더 이후 제국 분할통치(B.C 323 ~ B.C 30)**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B.C. 323년 그가 죽은 뒤 그대로 지속



되지 못했다. 알렉산더에게 분명한 후계자가 없었던 까닭이다. 알렉산더 사후 수년동안 그의 군 사령관들은 후계자 자리에 앉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기원전 301년 입수스에서 큰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야 4명의 주역이 정해졌다. 즉 카산더는 마케도니아 본국을 통치하게 되었고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그리스 북동부 지역), 셀레우코스는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의 통치자로 확정되었다. 이 무렵 팔레스틴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122년간 유대를 지배하였으며 이 시기에 유대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다. 또한 유대의 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 유대의 입장에서는 지배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뀌었을 뿐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는 계속 지킬 수 있었다. 단지 페르시아 시대에서는 배우지 않아도 되었을 헬라어를 헬라 제국에서는 강제로 배워야만 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 아래 122년을 보낸 유대는 기원전 2세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의 갈등이 다시 재기되면서 셀레우코스 왕조 치하로 들어가게 된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아주 짧은 시간동안 동서를 아우르는 광활한 제국을 형성하고, 이후는 분할되어 단일 제국의 위상을 간직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제국의 영향은 매우 컸다. 알렉산더의 야심은 단지 무력으로 또는 영토적으로 동방세계를 원정하고 지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세계와 오리엔트세계를 인종·문화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요절 이후 민족융합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가 건설한 대제국은 분열되었으나 세계 통합이라는 그의 꿈은 '헬레니즘 문화'의 전파로 실현되었다.

이집트인들은 알렉산더를 페르시아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킨 구원자로 여겨 환영했다. 알렉산더는 3년간 다리우스 1세를 추격하며 정복에 정복을 거듭했다. 페르시아 왕의 왕궁이 있던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파사르가다이가 그의 수중에 들어왔다. 이어서 메디아로 진군해 수도인 엑바타나를 점령했고, 인도까지 진출하여 인도 왕 포로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러나 기원전 323년 6월, 알렉산더는 아라비아의 원정을 준비하며 분주하던 중에 고열로 쓰러졌다. 결국 33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그때까지 알렉산더에게는 직계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측근들은 왕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8년의 원정으로 통합한 알렉산더 제국은 부하 장수들의 다툼으로 곧 분열되기 시작했다. 속주들은 곧 독립 왕국이 되었고 셀레우코스나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부관들은 앞다투어 왕을 칭하며 제국을 분할 점령했다.




**(2) 알렉산더 이후 제국 분할통치(B.C 323 ~ B.C 30)**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B.C. 323년 그가 죽은 뒤 그대로 지속



되지 못했다. 알렉산더에게 분명한 후계자가 없었던 까닭이다. 알렉산더 사후 수년동안 그의 군 사령관들은 후계자 자리에 앉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기원전 301년 입수스에서 큰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야 4명의 주역이 정해졌다. 즉 카산더는 마케도니아 본국을 통치하게 되었고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그리스 북동부 지역), 셀레우코스는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의 통치자로 확정되었다. 이 무렵 팔레스틴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122년간 유대를 지배하였으며 이 시기에 유대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다. 또한 유대의 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 유대의 입장에서는 지배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뀌었을 뿐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는 계속 지킬 수 있었다. 단지 페르시아 시대에서는 배우지 않아도 되었을 헬라어를 헬라 제국에서는 강제로 배워야만 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 아래 122년을 보낸 유대는 기원전 2세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의 갈등이 다시 재기되면서 셀레우코스 왕조 치하로 들어가게 된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아주 짧은 시간동안 동서를 아우르는 광활한 제국을 형성하고, 이후는 분할되어 단일 제국의 위상을 간직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제국의 영향은 매우 컸다. 알렉산더의 야심은 단지 무력으로 또는 영토적으로 동방세계를 원정하고 지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세계와 오리엔트세계를 인종·문화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요절 이후 민족융합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가 건설한 대제국은 분열되었으나 세계 통합이라는 그의 꿈은 '헬레니즘 문화'의 전파로 실현되었다.